**교제와 나눔**

**39-50호 2022년 12월 11일**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ㆍ대림절:** 그리스도를 기뻐 맞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ㆍ성탄절 및 송년주일예배:** 12월 25일 주일

**ㆍ오늘부터 14시**에 **주일예배**드립니다.

**ㆍ예산제직회:** 오늘 예배 후

**ㆍ예산공동의회:** 다음 주일

**ㆍ2023서리집사자원:** 섬김요청 받으신 분은 ‘예’라고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뒤메나라모임:** 12월 15일(목) 19시 온라인

**ㆍ청년부 가래떡 떡국떡 판매:** 오늘까지 주문(7유로, 석혜진), 다음 주일 수령

**ㆍ생일:** 권덕기, 이태하, 장혜진, 양귀남, 안희숙

**\*\* 함께 기도합시다 \*\***

1)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2)모이기에 힘써,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3)코로나19를 넘어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

4)공의와 평화의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  |  |  |  |
| --- | --- | --- | --- |
| 일/전8:1-8 | 월/전8:9-17 | 화/전9:1-10 | 수/전9:11-18 |
| 목/전10:1-11 | 금/전10:12-20 | 토/전11:1-10 | 일/전12:1-14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05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12월 11일** | **12월 18일** | | **12월 25일** | **1월 1일** |
| **예배기도** | 김한진 | 민경웅 | | 송인선 | 한상철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 **헌금위원** | 조경숙 김평님 | | | | |
| **애찬위원** | 밥상 둘 | 밥상 셋 | 밥상 넷 | | 밥상 다섯 |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주일예배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청소년부 14: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5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인도: 손교훈 목사

**주 일 예 배(3. Advent)**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 다함께 |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6장…….................................................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117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105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김한진 장로 |
| 찬양/Chor ………………………….….…………… 임마누엘 …………...…………....………… | 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 21:22-34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브엘세바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393장 ……………….……………….……. | 다함께 |
| 봉헌/Kollekte………................................................................................................................ | 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 **※ 표는 일어섭니다.** |  |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전6장 ‘인생 배우기’ ▶**

인생을 통해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은 '나의 한계'이다.

문제는 한계 속의 자유,

한계가 주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부유함과 존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소중한 걸 다 받았어도 시간을 얻지 못하면 다 헛된 것임을(2).

시간을 많이 얻고, 자녀를 많이 얻었다 해도,

그것을 만족하고 누리지 못하면 낙태된 자만도 못한 것임을(3-6).

마음의 공상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으나 결국은 공상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 속의 실재이나,

그것 조차도 망상일 수 있음을(9).

그림자 같이 지나가는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정확히 알려줄 자도 없음을(12).

허니, 더욱 가슴에 새겨야 한다.

한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선악과는 속박이 아니라 사실상 최고의 자유인 것을.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그어 주신 분을 알고,

복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한계 너머에서 한계 속으로 오신 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언제나 그 분 안에서 참 인생을 배운다는 사실.